

諭
嶺東

綸
音

乾隆四十八年十月日

賜私政院汪書

諭湖南民人葉綸等一件



恩命降附

待教臣尹



御製論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王若曰咨爾東民人明聽予誥古人有題畫

業者曰不可使民有此色民之有菜色人君

之恥也今爾九郡之民非但禾黍菽粟之告

荒一雨極備四野如滌無壺可斷無旨可蓄

於是乎壯者保抱携持厥婦子散而之他老

羸舉將有填壑之勢焉噫關東瘠土也田野

之廣人物之殷視湖嶺一大都會反不及焉

兼以疆界不正浦海有征歲科繫於浙茶月

貢重於荆蠟斫蓄而恒居絕少緝麻而常租

命

是代此東民之困窶最於諸路也予雖深處九重每勤東顧之憂餌藥而見蓼莪則思吾東民對膳而見魚鮮則思吾東民欲詢東民之疾苦則屢遣衣繡之行而慰諭之欲蘇東民之痼弊則每飭按節之臣而矯拔之惠不及民民不蒙澤職由予一人未能盡字恤之責故耳憧憧一念曷嘗頃刻忘于懷也噫九郡之民戶不下二萬有奇而炊烟者為幾戶口不下十萬有奇而啜粥者為幾口採於山能救并日之餒獵於海能辦數時之糧歟又

况終朝擷綿不盈傾筐永夜機織未斷數尺
緞有脫粟之食食其親而子不得食矣緞有
補綻之衣衣其夫而妻不得衣矣重之以釋
狹無知帝飢而號寒予想像此光景自不覺
惻然涕沾襟每夜繞榻殆至明發嗟我東民
知乎否耶噫今年灾荒振古所罕纔蠲畿湖
之稅又減關嶺之糴狀奏迭上絲綸交下宵
予衣旰予食者數月于茲六道之幾萬生靈
靡日不往來於方寸之中向所云十指之喻
道予衷情而喚彼九郡觀於道臣請穀之啓

益知其日甚一日比之水火行且焚溺而父
我母我仰首嗚呼少忽拯救無異推納豈忍
以日前一二事蠲免歸之了勘而立視其死
乎至於嶺之西雖與嶺以東有間同是赤子
何足較計况予七年御極曾無一惠暨東山
澤之竭而筐篚相望杼柚之空而尺寸不捐
比年調救之政不過是按例而已予常自視
飲然矧值無前大侵寧靳無前大惠嗟爾關
東民人尚明聽之哉今秋九郡何論面里分
等騎步兵布錢軍保雜色保米布錢奴貢米

布錢婢役價各項上納之出於身者嶺東全數蕩減嶺西之次邑尤甚面里折半蕩減大同米布之出於田者嶺東全數蕩減嶺西之次邑尤甚面里三分一蕩減漁鹽船稅之出於海者嶺東前已全數停退而更令限以明年嶺西船稅折半停退內醫院所納嶺東貢麥明年條一并蕩減其中官給之詳定元價除留各該邑以補賑還之需嶺西之次邑尤甚面里四分一蕩減當年新還餉嶺東一並限折半停退其中最遑汲處何拘折半視民

力參量收捧嶺西依畿甸例之次邑尤甚面
里三分一之次邑之次面里稍實邑尤甚面
里四分一之次邑稍實面里稍實邑之次面
里五分一稍實邑稍實面里六分一停退各
官房各軍門各衙門折受設屯處尤甚邑折
半裁減之次邑三分一裁減其餘以錢代捧
保貢米布之次邑以上已蠲減者外並從民
願代捧兩殿朔膳及三名日方物物膳之出
於嶺東者自十一月限明年停止嶺西限明
秋停止嶺東價米留作賑資月課米一體留

作賑資因是而又有布及者嶺穀轉移厥數
幾萬以水以陸見方次第督運開春糶賑庶
不至絕巡而昨年之已施於畿湖嶺者不施
之於關東可乎且予帑需之別儲一庫者政
為吾民水旱之備耳趣令別加息澤稍可寬
予心今以貂裘一領帑銀一千兩丹木五百
斤以補賑資噫民之無饑在予粟肉民之無
寒在予貂貉民之無病在予蓼木尚蠲經費
何惜乎內需猶減軍資奚有乎屯稅此予所
以不謀於廷臣而特降十行之綸者也抑又

思之賑政之可戒者有四飢口虛實易蒙也
 穀物精粗易雜也斗升小大易換也漿鹽鹹
 酸易混也分粟而必令檢量饋粥而必令嘗
 味者即去冬飭諭於畿湖方伯守宰之語也
 今於本道復以此申戒之噫小民靡依靡托
 者自可抄口付賑至若搢紳韋布之貧不自
 存者班族婦女之難於自衛者餓死于室有
 誰知之惠鮮之政尤所當念爾等無曰為恥
 須各代受噫如使予東民有菜色上自方伯
 下逮守宰以其法從事謝我東民父母之責

在予同胞之義在方伯守宰活萬則有賞漏
一則有罰爾等無恐予何多誥然而東民之
輕棄鄉里此非特爾等無恒產殆撫摩之失
其方也農有糶飢有賑田有蠲身有復何苦
而去鄉為哉今予救爾等之心庶質蒼穹爾
等回眺為笑反苦為樂予方跂足而俟之爾
等須悉予至意安堵莫業永作我東土之民

仍傳曰既承 慈教 敬不將 慈殿 慈
宮物膳朝膳方物丁體停止膳需自京廳唐
錄進排亦有可據
之例預令知悉

乾隆四十八年十月二十四日

이
유원출도팅동녕셔대소스민륵음

왕이이러특식기르샤뒤슬프다너희판동민
인들이불의내니르논말을드르라네사름
이그린노물에글을배곧오다가히빅성으
로하여금이빗치잇게못하리라하니빅성
이노물빗치이심은나라님금의붓그러온
일이라이제너희아흡고을빅성이다만벼
와기장과콩과조의흥년들뿐이아니라흔
비가크히즈자네년들이씨스듯하야박도
가히쌀거시업고먹을셋도가히들써시업

서이에저문이는그지어미와조식을잇을

고안고흐려져다른디로가고늘고여원이

는다장춧글형에며이일형셰이시니슬프

다판동은척박훈벼히라전야

들이라말의

너름파인들의만기가호령

전나경상두되
말삼이라

의훈큰고을보다가도도로혀밋지못하고

검흐야경계를니정치못하고바다에구실

이서히마다흐는셰가절강차셰에셔만코

들마다바치는거시형쥬구슬이에셔더호

야작치

화전을니려성애
호단말삼이라

를호기로뵈더시

사는 빅성이 바히적고 삼을 삼아 샹 시구 실
을 디라 방, 니 이근 동년 빅성의 근고 호고 간
난 흥 이 다른 도에 옷 씬 이라 너 비록 김 히 구
중 에 대 케 컬 이 란 이 시 나 미 양 동 을 도 라 보 는
근 삼 을 마 지 아 니 호, 야 약 을 먹 음 애 인 숨 이
삭 을 보 면 나 의 동년 빅성을 싱 각 호 고 반 찬
뒤 호, 야 싱 선 을 보 면 나 의 동년 빅성을 싱 각
호, 야 동년 빅성의 섹 고 피 로 움 을 못 고 저 호
야 여러 번 어 소 를 보 내 야 위 로 호, 여 니 르 고
동년 빅성의 고 폐 를 소 복 고 저 호, 야 미 양 감

소의게 신척흐되 폐고치는은혜 빅성의게

밋지 못하 나 박성이 턱턱 남지 못함은 진실

노나 호사름이 능히 사랑하 고 무홀하 느척

망을극진히 못호연 피라 동동 잠 안 도 벗 지
못 호 단 말 숨

라 호호싱각이엇지 일즉 경국인들 믿음에

나 치이 리 오 슬 프 다 아 흠 고 을 빅성 호 쉬 이

만 여 호 에 느 리 지 아 나 호 느 디 밥 짓 느 디 가

멧 회 며 인 커 가 십 안 여 구 에 느 리 지 아 나 호

느 디 죽 먹 느 재 멧 사 름 이 나 호 노 되 헤 가 나

모 하 야 능 히 여 러 날 골 문 게 슬 구 호 고 바 다

해간어치호야능히여러썰냥식을장만호
논지또호물며아침이못도룩면화를싸도
광주리에태지아니코긴밤에뵈를싸도두
어자홀은치못호니비룩겁질만벗긴밤이
아시나그어버이를먹이노라호니그죽식
은어더먹이지못호고비룩헌거슬기온오
시이시나그지아비를넘히노라호니그계
집은어터넘지못호거시오어린아희들이
아논거시업서주리기를올고치온거슬부
르지지논그광경을내싱각호면스스로추

연한야 눈물이 옷기 세져 즘을 쉬듯지 못하

니 모양 밤마다 어 탐을 들너 든 녀 거의 불거

에 니르니 슬프다 나의 동녘 북성들은 이 를

아 느 다 모로 논 다 슬프다 올 흥년은 네 업스

배라 겨유 귀 호 경귀와 흥성과 전 에 전 위 를

털고 판팅 함경과 경양도 환 상 을 감 하 야 장

게 가 서로 가 며 올 니 고 룬 음 이 나 어 느 려 내

가 오 슬 밤 드 도 록 하 고 버 가 음 식 을 나 제 야

하 얀 지 의 제 두 어 들 이 되 었 는 지 라 여 소 도

멋 만 이 나 흥 성 팽 북성이란 의 날 마 다 나 의

맛음가는대오락가락아닐세업스니저즈
음씩니른바열손가락이라흔비유가나의
맛음속을니르미라슬프다저아흠고음은
감스의목식청흐는장계로보아도더옥그
날노심흐뜻을아니비컨대들파블에장춧
트고빠지논듯흐야날을아비로알고나를
어미로아라머리를드러울고브르지지논
디조금이나건지고구흐기를범홀이흐면
내가밀쳐드리치
글 형에 드리치
난 말 숨이라 기와다르미
업스니엇지참아저적흐두어가지일을덜고

면함으로 버일을 다 하였노라 하였야 셔셔그
죽는 양을 보리 오 텡 셔 편은 비록 텡 동편 보
다가는 죠금 다르미 이시나 다인나의 적지
라엇지 족히 계교 할리오 할물며 내어극^죽
^{흐음}이^시단^말숨이라^하연^지닐^흡히^에일^즉호^가지^은
혜도 동녁 박성에미 촌일이 업고 산턱에너
가갈진^하야^광주^리에^녀히^밧치^는거^시셔
로니^엇고^비틀^파복^이부^여자^만호^것파^치
만^호것^도남^기지^아니^하야^근니^에지^호호^호
는^정스^는불^파전^테뿐^이라^버상^해스^스로

검연하야하더니하물며전에도업스큰흥
변을만나엇지천에업스큰은혜를앗기리
오스르프다너희판동벽성불아거의불이내
말을드르라올기를아함고을이야엇지면
니에분등을의논하리오거보병포전과군
보와잡식보의쌀과쇠와돈과노공의쌀과
쇠와비역가의각항모든상납이제신역에
셔나논거스탕동은전수탕감하고팅셔논
지차음우신면논절반탕감하고대동소
과쇠의밭해셔나논거스탕동은전수탕감

고팅셔지 처음우심면니는삼분일을탕
감고어염선세의바다혜세나는거슨팅
동은전에임의전수정퇴호여시되다시호
여금호명년정퇴호고팅셔선세는절반을
정퇴호고니의원에바치논인슴은명년쇼
를일병탕감고고중판가로셔상정호원
가로주는거슨각각고을에주어머물너버
진홀파환상에보태고팅셔지 처음우심면
니는소분일을탕감고고당년쇼신환상과
군향은팅동은일병절반을정퇴호고고중

무장황급한곳이아쁘엇지절반에거리세
리오빅성의힘을보아가며침작하야거두
어밧고팅셔는경괴규례대로지_초음우심
면니_는삼분일이오_지초음지_초면니와_초
실음우심면니_는스분일이오_지초음_초실
면니와_초실음지_초면니_는오분일이오_초
실음_초실면니_는혹분일을정퇴하고각궁
방과각궁문과각아문의절슈와둔전잇는
곳은우심음은절반을지_감하고_지초음은삼
분일을지_감하고그남아_는돈이로되보아하

고보미와공미와포논지 처음이 상임의견

감은자의예아오로민원대로더보응게하고

냥턴삭션과밋세명일 동지정요란일제방
날이란말숨이리방

물물션중이팅동에셔나논거손을십일일

노브터명틴을한하야정지하고팅셔논명

년고을섯지한하야정지하고팅동가미 상진

이 갑팔라논머물너진홀에보태고월파미도일

테로진주에보태되일로인하야또려니를

말이이시니팅남이전하논곡식이그쉬몹

만석을물노버하고못하로버하야이제비

야흐로 차례로 동은 향이니 다투면 봄 환상과 진
홀은 거의 절순 향기에 논나르지 아니하려
니와 전천에 경귀와 호셔와 텡남에 베프던
은혜를 판동에 베프지아니미가 향려또나
의탕슈 쥬넛곳 에 별노향고에 싸하둔거스
정.히내 빅성의 슈한 흥천에 구호를 위함이
라이제를 미처 별노은택을 더으면 적이가
히나의 근심을 펴어니 이제 초피 갖옷은 별
과니탕은 일천냥과 단목오빅근으로 버진
것을 보태노라 슬프다 빅성이 주리미업스

면내가고량파고기먹음깃고빅성이치우

미업스면내가갓오슬님음깃고빅성이병

이업스면내가숨출_{출인}이_과라_복을먹음깃

야경비_{쓰나}아_라해_의거_서법_히도_오히_려더_러주_려

든엇지니슈_시니_탕거_서라_쓰을_음앗기리오군

슈도오히려감흥려든엇지둔전세를도라

보리오이내배조경신하의게의논치아나

하고특별이열줄룬음을나리오논배라또

싱각흥나진홀에가히경계할일이네가지

이시니국민의허실이모로기취보곡식의

정취 혼잡기 쉽고 말과 의적고크기 밧고
이기 쉽고 장과 소곰이 밧고 식기 첫기 기쉬우
니 목식을느호매반드, 시검찰호야되고
죽을먹이 매반드, 시문져 맛볼거시니 이는
전년겨울의 괴호 경귀와 흥
충퇴라 감소와 슈령의
게신척호야 나른말숨이라 의제본도에다
시이말노버닐너게척호, 노라 슬프다 쇼민
의의지홀드업스자느스스로가히귀구에
생이여진홀에브칠여니와지어벼슬호턴
사름과선비의간난호야스스로지내지못

흥는 자와 낭반부녀의 스스로 보지 못할 자
 는 집에서 굴머죽은 들 뉘 알나 이 시리오는
 혜로 불상이 녀 키는 정시더우맛당이 녀
 흥배니 너희등은 붓그럽다 흥지 말고 각각
 뒤신을 보내 여바드라 슬프다 만일 나의 동
 녀 빅성으로 흥야금나 물먹는 빗치 잇게 흥
 면우흥로 감소로 브터 아래로 슈령에 니르
 히 그법으로 써다 스려나의 동 녀 빅성을 샤
 례하리니 빅성의 부모 된척 망은 내게 잇고
 동성 마튼의 는 감소와 슈령의 개 이 시니 만

민을살온즉상이잇고일인이라도싸진즉
별이이시리니너희들은근심치말나너엇
지말을만히호리오그러호나동택박성이
고향을브리기를수이턱이기는다만너희
들이^{근본잇는}향산^{세간이라}엿슬뿐이아니라조못
어르민지논도리를일하시미라농소에논
환상이잇고주리면진흙흙이잇고전답에
논세를더러주는거시잇고몸에논구실을
더러주미이시니엇지피로이그고향을브
리리오이제내너희들을구하려호니그마음

이거의적하늘에질정홀거시너너희들이
 우는거슬도로허웃고피로온거슬도로허
 즐기기를내보야흐로발을저기드덕여기
 드리노니너희들은모름즉이나의지극한
 뜻을다아라셔집을편안이호고농업을힘

써길이나의동토벽성이되게호라전교하야

사근려사뒤임의조교를받조오너엇기
 감히장순치아나호리호조현과조너조
 예물선과삭선과방물을일테로정하호고
 선슈는경형으로부터야련호야연파호고
 또호가귀홀전례이신니
 미호하여금얼게호각

건륭수십팔년십월이십사일



1875
1876

